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

충남 도립대학교 경찰행정 학과를 졸업한 9기 김○○입니다.
우선 저는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해서 남들이 경찰 과목에 쓰이는 단어, 문장들을 더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8이라는 나이에 처음 공부해 봐서 누구한테는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긴 시간을 공부해 이번 25년 1차에 공채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헌법은 처음 듣는 단어가 많아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한 번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후에는 진도별로 기본서를 읽고 나간 진도만큼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부분은 기본서를 한 번 더 읽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경찰학**

경찰학 같은 경우는 순수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한 번 들었다면 다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만 다시 듣는 방식을 했고, 저는 경찰학은 기출 문제를 풀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기본서를 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형사법**

형사법은 수학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서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출을 많이 풀었던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약해 기본서를 보는게 힘들어서 기출만 5권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

체력을 잘 보는 비결이나, 비법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부를 하면서도 체력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연습하고 체력도 필기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저는 필기를 맨 꼴찌로 붙었습니다. 또한 체력 같은 경우도 남들보다 살짝 잘 보아서 면접으로 뒤집고 붙은 케이스입니다.

이번 면접부터는 면접 비중이 높아져서 아무리 체력이나 필기를 못 봤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접 당시에 긴장되어서 질문과 답변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만약 면접으로 뒤집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면접학원에서 써준 답변들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고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기
2. 기계적으로 학원 답변 외운 것을 쓰는 것보다는 사람 냄새나게끔 자연스러운 답변과 남들이랑 똑같은 답변은 웬만하면 피하기
3.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을 말해보시오”라는 질문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정신력, 강인한 체력, 꼼꼼함이 대다수인데 저는 저의 장점은 야무진 일 처리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썼습니다.
->면접에서 뒤집어야 한다면 남들과 똑같은 답변 X

별 도움 되는 얘기는 없지만 저는 이랬다는 것을 써보았습니다.
수험생들, 후배님들 하면 됩니다.
수험생활은 막연하고 끝이 보이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우울한 날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오늘 공부한 사람 중에서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